

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(안)



2006. 3. 28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보고 순서

I. 살기 좋은 도시·농촌 만들기[안]

-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상생발전 -

II. 살기 좋은 섬 만들기[안]

- 섬지역의 해양생활문화공간 정책구상 -



대통령님 말씀

- 국가균형발전은 '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', '농촌 귀향 도시' 등을 포괄하여 복지, 문화, 여가, 안전 등을 갖춘 풍성한 문화도시·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임 (2005.9.5, 수보회의)
- 아름다운 섬들의 활용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음
국가적 관리를 통해 지역의 난개발 측면 등을 극복하고 인공과 자연이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함 (2005.11.30, 문화재청 보고서)

1. 살기 좋은 도시·농촌 만들기(안)

-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상생발전 -

차 례

- 1 **비전과 목표**
- 2 **주요 과제**
- 3 **향후 과제관리 방안**
- 4 **토의사항**

1

비전과 목표

1.1 도시화의 진전과 삶의 질 저하

1.2 여건 변화 및 정책패러다임의 전환

1.3 비전과 목표

1.1 도시화의 진전과 삶의 질 저하

- 우리나라의 도시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

※ 1950년~2005년 기간동안 도시화율[%]:

- 한 국 21.4→88.4 [4.1배]
- 일 본 34.9→65.7 [1.9배]
- 프랑스 54.3→76.7 [1.4배]
- 미 국 64.2→80.8 [1.3배]



- 선진국은 도시화 진행과 함께 삶의 질 향상 정책추진

※ 일본은 도시화율이 60%수준인 '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역주도의 도시/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추진

-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인구이동과 개발주의로 부작용 심화

- 도시 : 인구집중, 환경파괴, 획일화된 정주환경, 척박한 문화여건
- 농촌 : 인구유출과 고령화, 경제활동 저하, 생활서비스 수준 낙후

1.2 여건 변화 및 정책패러다임의 전환

여건 변화

- 소득증가로 삶의 질 중심의 가치관 대두
- 세계화,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역의 매력성과 창조적 인재가 중요
- 웰빙시대의 도래로 '농촌과 섬'이 생명에너지의 보고로 인식

정책패러다임의 전환

살기좋은
국토공간정책 추진

- 공간의 질 향상
[Quality of Place]
- 삶의 질 향상
[Quality of Life]

- 인재·투자·기업
유치, 일자리 창출
- 문화와 경제의
활성화

선진형
사회·경제 발전

1.3 비전과 목표

비전 목표

‘공간의 질’과 ‘삶의 질’을 중시하는 ‘살기 좋은 국토공간’ 창조
- 쾌적하고, 아름답고, 특색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-

5 대 과제

고품격
생활환경
조성

경관과
건축문화의
질 제고

도농상생형
복합생활공간
조성

지역공동체
복원 및
형성

지역별
특화브랜드
창출

추진 방식

- 지역사회와 주민 주도 :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책임
- 지역사회-지자체-중앙정부간 협력적 파트너십

2

주요 과제

2.1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

2.2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

2.3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

2.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

2.1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

사례 예시

숲과 공원으로
둘러싸인
녹색도시 만들기

- 녹지총량제 도입 등 녹지·공원 확충하기
- 학교숲 만들기, 담장허물기와 한평공원 갖기
- 녹색길[Greenways] 만들기
-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만들기 [67억원, 건교부]

사람중심의
녹색교통도시
만들기

- 대중교통이용 활성화
-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[10억원, 환경부]
- 보행자친화적 가로 조성하기

수준높은
교육·의료·복지 등
생활서비스 제공

-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학교 만들기
- 주민수요 맞춤형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
- 재해·범죄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

2.2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

사례 예시

아름답고 개성있는
도시경관 미관
가꾸기

- 가로시설물 정비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
- 가로, 교량, 문화재 등 주요 시설물 조명 연출
- 구릉지·하천변 자연경관 살리기
-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만들기

품격있는
건축문화
확산하기

- 창조적 건축디자인 발굴·보급하기
- 시민이 뽑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
-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건축문화 교실
- 전통 역사거리 복원하기

풍요로운
삶을 위한
문화여건 만들기

- 테마별 공연장·미술관·박물관 만들기
-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[복지시설 등]
- 생활권 도서관 늘리기
-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포럼 운영

2.3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

사례 예시

도시민을 위한 귀향마을 만들기



- 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만들기 [농림부]
- 기존마을과 융화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[농림부]
- 마을숲 조성하기 [5억원, 환경부 · 산림청]

양질의 생활서비스 제공하기



-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[2,214억원, 농림부]
- 소도읍 · 면의 복지, 문화기능 강화
- 인근중소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[교육부]
- 배후중소도시의 의료지원기능 강화

귀향도시민의 여가 및 느린생활 즐기기



-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농어촌 봉사운동 참여
- 느린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- 친목회, 동호회 등 지역 소모임 활성화

2.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

사례 예시



-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[꽃길 만들기 등]
- 마을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
-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만남과 교류 활성화 [건교부]



- 학교시설의 복합화 및 지역사회에 개방하기
- 방과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[250억원, 교육부]
-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환자방문과 간병하기
- 공공·민간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의료봉사 활성화



-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확충하기
- 고령자와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수있는 마을 만들기
- 계층혼합[Social Mix]으로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

2.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

사례 예시

지역고유의 테마 만들기

- 마을이야기를 발굴하여 추억공간 만들기
-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상징만들기
- 지역고유자산을 생태관광자원화 [142억원, 환경부]
- 지역특산물을 브랜드로 키우기

장소마케팅 전개하기

- 세계에서 하나뿐인 고유의 마을 축제 만들기
- 지역고유테마를 활용한 해외지역과 교류하기
- 재래시장만의 특별한 이벤트 만들기

균형발전 선도도시를 살고싶은 도시의 모델로 만들기

- 한국도시를 대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기
- 개성있고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
- 투자를 촉진하는 살기 좋은 기업도시 만들기

3

향후 과제관리 방안

3.1 시기별 과제관리 방안

3.2 지역사회 · 지자체 · 중앙정부의 파트너십

3.3 중앙정부의 조정 · 협력 체계

3.4 과제의 조정 및 지원

3.1 시기별 과제관리 방안



3.2 지역사회 · 지자체 · 중앙정부의 협력적 파트너십



- 지역사회는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정책토론 및 제안
-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· 추진 및 지역사회활동 지원
- 중앙은 부처간 정책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, 제도개선 등 지원

3.3 중앙정부의 조정·협력 체계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- 관계부처, 위원회, 국책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정책개발
- 단행본 발간,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한 이론 정립 및 보급

조정
협력

관계부처/국정과제위원회

- 건교부/건축문화선진화위
: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관리
- 농림부/농특위
: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정책관리
- 환경부/지속위 : 환경분야 정책개발 및 지원
- 교육부: 교육여건 개선, 교육공동체 활성화
- 복지부 : 의료·복지여건 개선, 의료공동체 활성화
- 문광부 : 문화·관광여건 개선
- 행자부: 지역공동체 형성지원 등

3.4 과제의 조정 및 지원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국정과제 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
- 중복과제의 조정 및 연계 강화, 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분
- 지자체/지역사회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추진
- 성과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


토 의 사 항

4.1 토의 사항

1. 정책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?

- [1안]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
- [2안] 도농상생형 국토공간 계획
- [3안] 국민생활공간 개조계획
- [4안]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등

2. 중앙부처, 국정과제위원회 사이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?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협의체 구성여부[6월 이후]

3. 시범사업은 언제,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?